

# 트로트페스티벌 유명가수 총출동

10월 20일 진안 마이산 북부 송대관·주현미 등 대규모 지난해 축제 13만명 운집

2018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0일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29일 이항로 진안군수, 신갑수 군의 장을 비롯한 송대관 조직위원장, 트로트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가수들과 함께 KBS 신관 아트홀에서 기자회견회를 가졌다.

4회제인 올해 트로트 페스티벌에는 송대관, 주현미, 김연자, 박상철, 김용림, 한혜진, 설하은, 서지호, 박서진, 장민호 등 10명의 트로트 별들이 출연해 대규모 공연이 열려 군민과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트로트페스티벌 홍보 대사 위촉패 수여와 조직위원장을 맡은 가수 송대관의 각오, 트로트페스티벌 관련 브리핑, 미니인터뷰 순으로 진행됐다.

이항로 군수는 "지난해 트로트 페



2018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20일 진안군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티벌에 경찰 추산 13만명이 넘는 관객이 행사장에 운집하며 대성황을 이뤄 올해에도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진안고원이 트로트를 통한 전 세대 화합은 물론 영·호남 통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 대한민국 트로트페스티벌은 10

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2018 진안홍삼축제 기간 중 2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전국 노래강사의 식전공연과 국내 정상급 트로트가수들이 총출동해 진안홍삼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려 진안고원을 달굴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동심 저격 '무주반디랜드 수족관' 개장

총 사업비 20억원 투입

수달·어름치 등 87종 전시

무주군은 반디랜드 내 수족관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곤충박물관 출구 135m 구간에 계곡 수조와 대형수조 등 22개 수조를 설치했으며 지난 27일부터 수달을 비롯한 어름치, 장지뱀, 피라미크 등 87종에 달하는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 전시를 시작했다.

장수에서 왔다는 이모(45)씨는 "애들 데리고 우연히 왔다가 황재한 기분"이라며 "그동안 우리 도내에는 이렇다 할 체험·학습형 수족관이 없어서 애들 보여주자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무주에 수족관이 생겨서 좋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디랜드 수족관 조성사업은 무주가 2015년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했다.

하반기에는 어류·양서류·파충류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생태체험학습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에 개막을 앞둔 시점에 수족관을 개장을



무주군 반디랜드 내 수족관의 수달

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청 환경산림과 김성화 환경관리 담당은 "급강과 구천동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 양서류, 파충류부터 세계의 불고기까지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무주에 실제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수달의 생태를 공유하기 위해 특별 전시공간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에서는 반딧불이를 비롯한 2,000여 종의 희귀곤충표본과 열대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반디랜드 천문과학관에는 전시실과 영상실, 관측실 등이 마련돼 있어 태양을 비롯한 행성과 성운, 성단을 비롯한 천체들과 인공위성 관측이 가능하다.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는 박물관은 살아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야간곤충 탐험과 생태은실 내비방사, 수족관 먹이주기, 곤충표본 만들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누워서 보는 밤하늘의 별자리

무주반딧불축제 프로그램

'반딧별 소풍' 접수 한창

지난해 무주반딧불축제에서 시범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던 '꿈을 담은 반딧별 찾기' 프로그램이 올해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이 돼 방문객들과 만난다. '반딧별 소풍'으로 이름 지어진 이 프로그램은 에어매트에 누워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보는 것으로 천문 전문 문구의 도움과 안내를 받으며 체험해볼 수 있다.

무주군 무주읍 대치리 서면소이 나루 공원에서 내달 1일부터 진행되며 하루 120명 체험이 가능(체험 희망일 전날 6시까지 인터넷 접수)하다. 무주군은 꿈을 담은 반딧별 찾기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면버스도 4대 운행한다.

무주군과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는 지난해 독수리자리에 있는 '견우별'과 거문고자리에 있는 '직녀별', 그리고 '네네부(백조자리 피리)'를 각각 운문산반딧불이와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자리로 정하고 지정 서명식을 가졌으며 '반딧별'을 상표 등록하기도 했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무주 반딧별 지정을 위해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 하늘로 올라 간 세 남



자(5월이 운문산 반딧불이, 6월의 애반딧불이, 8월의 늦반딧불이)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었다"며 "세 별자리가 모두 1등성이어서 가로등 불빛이 있는 도심 한 가운데서도 쉽게 찾아지는 만큼 일상에 돌아가서도 무주반딧불축제와의 인연, 무주에서의 추억이 오래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읍 무주종합수련원에서 진행되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은 반딧별이 신비탐사와 반딧별축제장 체험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참가비용은 4인 기준 18만원(5인 20만원)이다.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1박 2일 생태탐험은 총 40가족(160명 내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은 반딧별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진안군은 오는 9월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아동수당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관내 전체 대상자 902명 중 93%에 해당하는 842명(8월 29일 기준)이 신청을 마쳤다.

군은 높은 신청률을 보이고 있으나 관내 대상자 중 한 명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막바지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미 신청가구에 대해 우편 재발송과 문자·전화 등을 통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직접 가구 방문을 통해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입 및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 대상 여부 재확인으로 수당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 가구의 만6세 미만(0~7개월) 아동에 대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며,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모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내달 4일 장수아카데미 강연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장수아카데미 9월 강좌는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향부속 강형기 대표를 초청, '장수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장수아카데미는 9월 4일 오후 3시, 장수군민회관에서 열리며 강사인 강 대표의 자신이 그동안 연구해온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장수군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진단과 함께 장수군의 미래 지향적인 좌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대표는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직, 제1, 2기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위원직 등을 역임하며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바 있으며 '지방자치학', '지방자치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이번 아카데미가 장수군이 추진하는 풍요로운 미래의 땅, 활찬 장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강형기 대표의 연구 경험을 통해 장수군의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군수는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침령산성, 日고대산성연구회 관심 한몸에

4박5일의 일정 유적답사 실시

"규모·보존상태 너무 좋아" 극찬

장수군은 일본고대산성연구회(회장: 무카이카즈오) 회원 15명은 지난 28일 장수군 대표 고대산성인 침령산성을 찾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광장근 소장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장수 침령산성은 2014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직경13m의 원형집수정(우물지)과 내부에서 수문의 개폐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르래가 전국최초로 확인됐으며 수천 점의 목재유물이 발견돼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고대산성이다.

이날, 장수 침령산성을 찾은 일본고대산성연구회는 일본 내 산성전공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와 관심 있는 일반인이 두루 참여하고 있으며 회비를 통해 일년에 한차례 세계의 고대산성 현장답사를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한

국을 찾아 4박5일의 일정으로 장수침령산성을 비롯해 부여의 부소산성 등을 찾아 유적답사를 진행 중이다.

침령산성을 찾은 일본고대산성연구회 회원은 아카시 요시히코 (오노조고코로노 후루사토박물관 관장), 구로다 게이이치(불담 보존기술협회 회장), 야마지 교노스케(NPO법인 문화자활협동조합, 일본고고학회), 야마모토 도시히로 (타카마치시 문화재단과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이었다.

한편, 침령산성을 찾은 무카이 카즈오 회장은 유적은 일본의 고대산성 연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 꼭 와 보고 싶은 유적이었으며 막상 와보니 한국 내 침령산성이 손꼽히는 이유를 알게 됐으며 성의 규모나 보존상태가 너무 좋아 일본 내 답사 결과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다시한번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